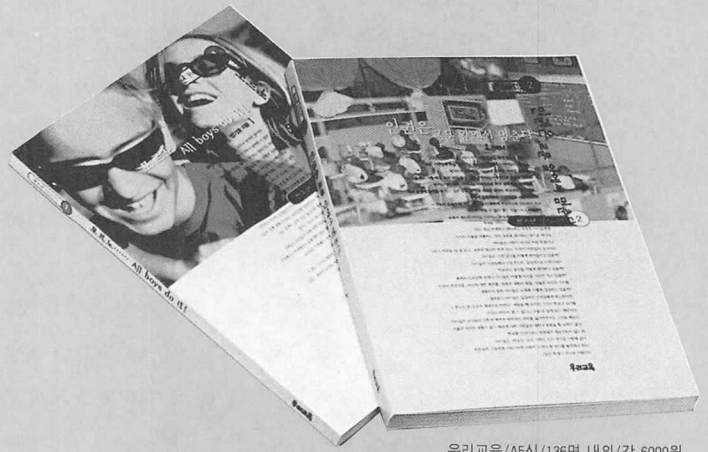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청소년 리포트〉 시리즈 1차분 나와

〈청소년 리포트〉 시리즈는 '문제적'인 기획물이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담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여보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이론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층면접으로 아이들의 삶에 다가선 이 시리즈는 교육 주체들이 서로 말문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교육/A5신/136면 내외/각 6000원

요즘 학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혹시 내 아이가 '일진회'에게 폭행당하지나 않을까. 반 아이들에게 왕따당하지나 않을까.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께 꾸중듣지나 않을까. 원조교제가 유행한다는데 내 아이도 혹시... 학부모들은 아이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교사들도 요즘 아이들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노랑고 빨강계 물들이는 아이들이 웬지 멀리 느껴진다. 부모에게 학교 간다고 말해놓고 아르바이트하러 주유소로 출근하는 아이도 있다. 이제 더 이상 교사의 권위가 딱혀들지 않는다. 격세지감을 실감할 뿐이다.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보자

'도대체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단 말야.' 아이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이렇듯 당혹과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가 진정 마음을 열고 그들과 솔직하게 마주앉아 본 일이 있었던가. 기성의 편견으로 그들을 교화와 계몽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다.

우리교육에서 기획·출간한 〈청소년 리포트〉 시리즈는 아이들의 마음과 눈으로 학교현장을 보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의 삶을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보자는 것이다. 1차분으로 나온 《포르노 All boys do it!》(엄기호),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배경내)는 이런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이 시리즈를 기획한 우리교육의 박복선 편집장은 아이들에 대한 이론과 해석 대신에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한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담론은 무성했지만 실제로 스스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일은 드물었다. 청소년들의 총체적인 삶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이 책을 기획했다"고 말한다.

이 시리즈는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이루고 있는 열 개의 테마, 즉 포르노·인권·공부·매체·팬클럽 등을 선정, 아이들의 삶에 다가선다. 청소년의 삶에서 간과된 중요한 소재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생생히 드러내기 위해 심층면접 기법을 활용했다.

《포르노 All boys do it!》은 십대들이 포르노를 통해 성적 주체로 형성되

는 과정을 기록했다. 제목이 시사하듯 이제 청소년에게 포르노 문화는 호기심도 비밀도 아니다.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다. 그들이 포르노를 접한 경로와 반응, 그리고 성적 태도 등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성적 주체로서 자각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고서

"포르노를 처음 보고는 엄청 흥분됐죠... 나중에는 포르노라는 거 거기서 거기기간 별로 흥분도 안 되더라구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뭐. 액션 영화 봤다고 다 흥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라는 한 남학생의 말은 포르노에 대한 보편적 수용태도를 보여준다. 지은이는 십대들이 '남성·성기중심'의 성의식을 수용한다고 분석하고, 학교에서 포르노 문화를 솔직히 인정하고 성찰할 통로를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인권'이란 프리즘으로 학교를 해부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학교가 감옥이나 병영 못지 않은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충격적으로 증언한다.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교사들, 명백한 폭력으로 다가오는 체벌, 사생활 침해의 전형인 소지품 검사, 모욕과 무시가 혼란된 언어폭력 등 학교현장의 일상화된 인권침해 사례가 날것 그대로 폭로된다.

지은이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타자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침해가 만성화됨으로써 인권에 대한 체념의식을 내면화하고 나아가 인권 가해자로 탈바꿈한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아이들이 '진정한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학생'이 아니라 '인간'임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청소년,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이 서로 말문을 트는 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천홍 기자